



글쓰기의 편견

김문수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아마도 『현상학적 운동』이라는 책이었을 것이다. 그 책에는 초기 현상학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단체사진이 몇 점 실려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일생동안 단 한편의 글도 출간하지 않았던, 그래서 낯은 사진과 동료들의 추억을 통해서만 기억되었던 한 현상학자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단 한편의 글도 출간하지 않았기에,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학적인 기여를 했는지 도통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모습은 한 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책의 저자가 그를 변명해주던 한 구절 때문이었다. “사유와 반성이 너무 치열한 나머지 일생동안 단 한편의 글도 쓸 수 없었던...” 이 구절은 글쓰기의 고통 때문에 학업 중단을 생각해본 적이 있을 만큼 글쓰기를 꺼려했던 나에게 적지 않은 위안을 주었다. 성급하고 성긴 글보다는 사유가 영글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좋고, 글쓰기를 망설이는 것이 오히려 사유의 진실함을 입증하는 것 아닐까 하고 말이다.

물론 그 때도 이것이 우스운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구절은 글쓰기, 특히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것 같다. 학술적 글쓰기와 사고는 별개이며 종종 대립한다는 식의 관점 말이다. 글쓰기와 사유가 대립할 때, 우선권은 통상 사유에 주어진다. 이로부터 글쓰기는 단지 사고를 재현하고 표현하는 부차적인 것 지나지 않으며, 글쓰기는 사고를 종종 왜곡하고 방해한다는 식의 편견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는 또 다른 편견과 맞물린다. 사고가 차고 넘치면 별도의 노력 없이도 글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는 편견이 그것이다.

글이나 글쓰기를 사유나 사유과정에 대해 외적인 것, 부차적인 것, 심지어 사유를 왜곡하는 것으로 폄훼하는 편견은 서양에서는 플라톤의 문자 비판 이래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런 식의 편견에 따르면, 글은 사유의 적일 수도 있으니 진정한 사유를 위해 가끔씩 글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편견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글의 속성인 공유가능성과 분절적인 성격을 알아 본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글의 공유가능성과 분절적인 성격은 사유의 진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사유의 본성에 위배된다는 식의 생각 말이다.

그러나 글쓰기는 사유를 재현하고 표현하는 한낱 부차적인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모호하게 덩어리져 있는 사유를 조직하고 명료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며, 이는 다름 아니라 글의 분절적인 성격 덕분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조금 과장을 섞자면, 글쓰기는 사유를 표현하고 재현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사유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한편, 공유가능성이라는 글의 속성 덕분에 사유의 유통은 가능케 되며 이를 통해 사유는 확장될 수 있다. 글의 이러한 속성은 오늘날 지식사회에서 글쓰기가 부각되고 불가결해지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진부한 소리지만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의 습득보다는 지식의 생산과 유통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글쓰기는 이와 같은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잡지의 말마따나 지식사회는 “글쓰기가 밥 먹여주는 세상”인 것이다.

근래에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는 이유도 글쓰기가 지닌 이와 같은 면모나 사회적 변화에 주목해서일 것이다. 요컨대, 한편으론 기존의 수동적이고 평균적인 인간형만으로는 급변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반성이, 다른 한편으론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인간형을 길러내는 데는 글쓰기 교육이 유력한 대안이 된다는 인식이 글쓰기 교육 강화의 기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제 글쓰기는 갖추면 그저 좋은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 되었다.

그런데 글쓰기 상담을 하다보면 글쓰기를 그저 눈앞의 점수 획득을 위한 귀찮은 작업 정도로 치부하는 학생들을 제법 많이 만나게 된다. 이런 학생들은 글쓰기의 어려움을 한두 번 겪고 나면 속절없이 글쓰기 작업을 포기하거나 아무런 정성도 기울이지 않은 채 요식만 맞추는 글쓰기로 내달리기 일쑤이다. 이들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글쓰기의 절박함에 대한 인식이다. 나아가 글쓰기도 지남한 훈련과정을 요하는 엄연한 기술이라는 인식 역시 필요하다.

통상 글쓰기의 어려움은 글쓰기를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한다. 즉 글쓰기에 필요한 노력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우리는 피아노, 미

술 등을 배울 때와는 달리 글쓰기 할 때 자신이 초보라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인정한다 해도, 언어의 익숙함에 속아 그림 그릴 때나 피아노를 칠 때와는 달리 곧바로 수준작의 글을 쓰려는 조급함을 보이기 십상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필휘지(一筆揮之)의 환상, 그러니까 사유의 충만함으로부터 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 보는 편견이 일조한다. 글쓰기에 필요한 노력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다보니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됨은 물론이다.

글쓰기에는, 특히 학술적인 글쓰기에는 사유의 힘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글쓰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글을 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인도 모른다. 이를테면 많이 꾸준히 써보아서 그 체험을 간직해야 한다. 어떤 영국 시인이 소박한 시구를 통해 말하듯, 춤을 배우면 몸짓이 가벼워지듯 글쓰기를 기예로서 바라보고 꾸준히 연습할 때야 비로소 글쓰기가 쉬워질 수 있다(True ease in writing comes from art, not chance/ As those move easiest who have learned to dance). 여기서 기예란 신체적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수행적 앎을 의미할 것이다. 글쓰기가 수행적 앎이라는 것은 글쓰기가 일반화가 힘든 개별적인 앎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거기에는 흔히 말하듯 왕도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 글쓰기의 능력은 오로지 힘들여 글을 써보는 것으로부터 한 땀 한 땀 얻어지는 경험칙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글쓰기의 테크닉을 연마하는 것 이전에 글쓰기를 테크네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제시되는 구양수의 삼다(三多)에서 으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다독(多讀)도 다상량(多商量)도 아닌 다작(多作)이다.

사실, 글쓰기를 사유에 비해 부차적이라고 보는 편견은 글쓰기를 아무런 기술이 없어도 사유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편견과 얽혀 있다. 이 편견은 글쓰기의 어려움에 부딪치는 순간 깨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글쓰기의 어려움이 이런 편견을 강화하여 사유를 다시 한 번 신비화하기도 한다. 사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글쓰기는 더더욱 주저된다. 그래서 글쓰기의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그 이유를 사유의 미숙함으로 성급하게 돌리지 않고, 어려움의 이유를 정확히 분간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 어려움도, 사유의 미숙함도, 일단 글을 써보아야만 알 수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글쓰기의 신체적 노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 중 하나인 완벽주의적 태도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싶다. 글쓰기를 위해서는 글쓰기에 관련된 편견을 씻어내는 것 못지않게 태도 전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완벽주의는 언뜻 칭찬받아 마땅한 성향



같지만 기실 무력함과 소심함에 대한 전도된 의식이다. 완벽주의는 자칫하면 아예 글 쓰는 것을 힘들게 한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다보면 같은 문제를 계속 붙잡게 되어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고, 그 와중에 애초의 동기나 활력은 온데 간 데 없어지기 십상이다. 결국 글쓰기 능력의 향상 같은 것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일전에 스피노자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학자가 자신이 20대 중반에 쓴 스피노자에 관한 책에 대해 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 그는 그 책을 일러 “지금 같으면 낫 뜨거워 못쓸 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과거의 책에 대한 부끄러움과 회한이 느껴지는 대신, 20대의 그가 겪었던 치기어림과 어설피름이 빚어낸 책의 독특함에 대한 긍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의 말처럼 인생의 특정 시기에만 쓸 수 있는 글이 있으며, 역으로 글 쓰는 것을 주저해서 특정 시기를 보낸다면 그 시기만이 빚어낼 수 있는 고유한 글쓰기 역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완벽주의라는 허명에 매달리지 말고 당장 글쓰기를 시작하고, 그 글에 지금 여기가 그려낼 수 있는 독특함을 채워보는 것이 어떨까.

리포트 특강: 유형별, 계열별 글쓰기

세부 프로그램	
계열별 글쓰기	인문 계열 / 사회 계열 / 과학기술 계열 리포트 작성법
유형별 글쓰기	연구논문 / 실험보고서 / 서평 리포트 작성법

[시 기] 4월, 10월 (매학기 1회 개최) **[대 상]** 서울대학교 학부생

[신 청] 글쓰기교실 홈페이지(<http://writing.snu.ac.kr>)에서 온라인 접수

[주 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